



온누리에 축복... 메리 크리스마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탄절을 앞둔 2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사내래 공동생활가정을 방문,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북구는 매년 공동생활가정 등을 위로 방문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

## 지방선거, 이번엔 '정책선거'로

시·도선관위·전발연·광주여성재단·민주당 매니페스토 의제 발굴 활발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이끌 매니페스토(정책 선거) 운동을 위한 어젠다(의제)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와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의제 개발에 나섰고, 광주여성재단도 여성 정책의제 토론회를 여는 등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정책 의제를 개발해 주요 정당과 후보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 선거'운동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는 지난달부터 학계·시민단체·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이하 매니페스토 추진협)를 구성했다.

시·도 선관위 매니페스토 추진협은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

특성에 맞는 광주·전남지역 각 10대 정책 어젠다를 내년 1월까지 개발해 이를 유권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및 미래 예측 기법을 활용한 델파이 기법과 시민정책수요 여론조사, 단체 등을 통한 의견선정 공모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정책 어젠다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남발전연구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약을 선정·표출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 문 의가 잇따라 일종의 '공약 풀(Pool)'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광역단체 산하 연구기관이 공약을 만든다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믿음직한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지역 특성

에 맞고, 공약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여성재단도 최근 여성정책 의제발굴 토론회를 열고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광주여성재단은 토론회를 통해 여성들의 고용정책 수립 등 경제활동 보장과 폭력 제로 마을 안전망 체계 구축 등의 범위 예방 정책 마련을 의제로 주목했다.

아울러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시민대상 성 평등 교육 확대 실시 등의 의제들도 논의됐으며, 여성재단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제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난 9월부터 '2014 지방선거 정책개발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를 중심으로 한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등도 조만간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10대 어젠다를 만들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빠르게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도 정책 개발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 이번 지방선거가 이전과 달리 정책선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독주체제가 지속됐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안철수 신당" 창당이라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정당·후보들 간 "공약 전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 개발을 서둘러야 후보들이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철도과업 대치 그만...勞政 대화 나서라”

화물열차 운행 20%대·30일 이후 KTX 50%대로...승객 불편·물류난 확산

철도노조 파업 16일째인 24일 열차 운행률이 70%대까지 떨어지면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확대되고 산업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민주노총 본부에 지난 22일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단 한 명의 집행부도 검거하지 못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만 사고 있다.<관련기사 4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 국노총도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을 발표,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파업 장기화 부채질=정부는 철도과업이 시작된 뒤 그동안 수시로 노조에 대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자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실무간부 2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지금까지 2명을 구속했다.

또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작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정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다는 첩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민주노총 본부에 지난 22일 사상 첫 진입하는 초강수를 두고도 검거에는 실패했다.

결국, 경찰의 첫 공권력 투입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노사정위 불참을 비롯한 정부와의 모든 대화 중단을 발표했다.

◇철도운행률 '뚝'...산업계 큰 피해=파업 초기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8418명과 대체인력 6035명을 모두 투입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를 평상시와 같이 운행하는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운행률도 75% 수준

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23일부터는 KTX 운행률이 73%까지 떨어지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상의 59.5%, 63%만 각각 운행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파업 초기 40%대에서 지금은 20%대까지 줄어들어 연말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30일 이후에는 KTX 운행률이 56.9%로 더 줄어들고 화물열차도 20% 수준만 운행된다. 내년 1월 6일 이후에는 필수유지 대상이 아닌 화물열차는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정중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강경 대처하고 있는 노·정이 한발씩 물러서 지금이라도 차분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

법원 "증거 없는 공여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못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서울로마자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8년 3월 목포 한 대로변에서 피고인의 비서관 이모 씨를 통해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 2011년 3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했다는 오 전 대표 등의 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임 전 회장 이 별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

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 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LIRIKOS

수분.미백.탄력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피부는 완벽해지니까

리리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

3가지 마린 플라톤 에너지가 완성한 밸런싱 케어-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가 숨어있던  
수분, 미백, 탄력의 피부 잠재력을 깨우다

응답하라  
드라마 속  
'고아라 에센스'

수분

미백

탄력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에어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이모레퍼시픽 고령 서브센터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